

# 상실 주체와 ‘상실 주변’의 ‘(불)가능한 애도’ 양상 연구

— 권여선의 『레몬』을 중심으로\*

마 혜 정\*\*

## 요약

이 글은 애도 서사의 맥락 아래 권여선의 『레몬』을 놓고 그간 축적된 애도 (불)가능성의 담론을 차용하되 『레몬』의 특수한 지점을 찾아 그 양상과 의미 작용의 방식에 대해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상실 주체인 ‘다연’의 우울증적 증상을 살피고 데리다의 애도 이론에서 ‘타자의 타자성’ 개념을 활용해 그것의 물리적 복원의 의미를 탐구한 뒤 부재하는 다른 인물로의 리비도 전위를 통해 애도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상실 주체의 시적(詩的) 타자로의 존재 전환을 논구함으로써 『레몬』의 모든 화자가 시를 쓰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궁극적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다음으로 주변인의 서사를 살핀다. 두 인물은 각자의 현실 안에서 상실과 타자의 의미를 탐구하는 ‘가능한’ 애도의 실천자들로 첫 번째 인물의 경우 상실 주체를 관찰하고 그의 이품을 짐작하는 행위를 통해 당사자의 애도 과정을 애도하는 인물로 의미화했다. 그로 대변되는 주변인의 전형적 애도란 묻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연대를 포함한다. 두 번째 인물은 간접적 가해 주체로 볼 수 있는 인물로 고립된 채 시 짓는 행위를 통해 신을 경배하고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가능한’ 애도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주제어: 애도 서사, 『레몬』, 상실 주체, 상실 주변, 애도 작업, 불가능한 애도, 우울증, 타자, 시적 타자, 관찰, 고해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294)

\*\* 목포대학교 교육혁신개발원 강사

목차

1. 서론
2. 우울한 상실 주체의 애도 불가능성
3. 이후에 가능한 '상실 주변'의 자기애적 애도
4. 결론

## 1. 서론

애도 서사란 기본적으로 죽음 모티프를 가지고 있고 '살아남은 자'에게 초점을 맞춰 어떻게 죽은 자에게 응답하느냐의 문제를 다룬 소설<sup>1)</sup>을 뜻하는데, 우리에게 애도 서사라고 이름만한 문학의 계보는 2014년의 '사건'<sup>2)</sup>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되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전 급증했던 종말론적·목시록적 상상력<sup>3)</sup>의 서사들이 다루었던 기발한 재난의 형상이 현실화된 듯한 사건 앞에서 문학은 또다시 가장 예민한 애도의 매체<sup>4)</sup>로서 재현의 언어를 발견해내고 목도의 공동체<sup>5)</sup>로서 가졌던 통감을 문학의 형식으로 함께 나누는 바 있다.<sup>6)</sup> 서사들은 대부분 애도하는

1) 정혜경, 「2010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불가능한 애도'의 양상과 윤리-황정은, 김숨, 윤이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3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161면.  
 2) 박민규, 「눈먼 자들의 국가」, 김애란 외, 『눈먼 자들의 국가』, 문학동네, 2014, 42면. 박민규는 이 글에서 여러 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박이 침몰한 '사고'이자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것이 결코 단순 사고에 그치지 않고 명백히 국가의 책임이 있는 사건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후 본 연구에서 쓰는 '사건'이라는 말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 한 세월호 참사를 가리킨다.  
 3) 소영현, 「민주화의 역설과 한국소설의 종말론적 상상력 재고」, 『한국문예창작』12, 한국문예창작학회, 2013 ; 신수정, 「종말의식의 재현과 휴머니티의 기원」,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문예비평학회, 2011.  
 4) 우찬제, 「애도의 윤리와 소통의 아이러니」, 『문학과 사회』27, 문학과지성사, 2014.  
 5) 김홍중,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68면.  
 6) 황정은의 「웃는 남자」(2014, 2016), 「누구도 가본 적 없는」(2015), 김애란의 「입동」(2014), 김영하의 「아이를 찾습니다」(2014), 박민규의 「대면」(2014), 이장욱의 「낙천성 연습」(2016), 김연수

마음이 어떠한 형식으로 재현 가능한지를 탐구하고 그것이 지난한 과정 끝에 얼마나 새롭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준다. 손정수의 구분처럼 '사건 자체가 재현의 형식을 통해 직접 도입되는 방식'이거나 '사건을 유추할 수 있는 허구적 사건을 알레고리의 방식으로 소설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접근함으로써 재현 불가능한 애도의 서사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간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도 '애도하는 마음의 새로운 실패'가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가의 문제에 있었다. 김형중<sup>8)</sup>은 사건에 대한 문학적 재현이 불가능할 때 르포와 논픽션이 수행하는 기록 작업이 문학적 실천의 하나일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고 김영삼<sup>9)</sup>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소설집인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2015)에 실린 작품들을 대상으로 재현의 한계를 살핌과 동시에 재현을 넘어선 공감의 힘과 돌봄의 가치를 언급한다. 신성환<sup>10)</sup>은 최인석의 「조침」, 윤대녕의 「다터 K의 경우」, 김애란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김연수의 「다만 한 사람을 기억하네」를 대상으로 참사로 인해 가족이나 연인을 잃은 이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그들의 부재를 확인하고 애도하는 과정을 살피며 기억의 탐색과 복원을 통한 회생의 문제를 논의하고 정혜경<sup>11)</sup>은 황정은과 김숨, 윤이형의 2010년대 소설을 논의하며 '애도'라는 '아젠다'의 정치적 가능성을 주체의 윤리적 행위 차원으로 환언하고 실패와 반복, 두려움의 행

의 「저녁이면 마냥 걸었다」(2017), 박형서의 「외톨이」(2017), 김희선의 「골든 에이지」(2017) 등의 단편들은 특히 애도 서사의 특출한 성취로 정리된다.

- 7) 손정수,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이 소설에 도입되는 방식들 : 세월호 사건 모티프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6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173면.
- 8) 김형중, 「문학과 증언: 세월호 이후의 한국문학」, 『감성연구』12, 전남대학교교남학연구원, 2016.
- 9) 김영삼, 「세월호 '사건'과 '사건' 이후 문학의 가능성-『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감성연구』16, 전남대학교교남학연구원, 2018.
- 10) 신성환, 「한국 소설에 나타난 부재의 기억에 대한 상상력」, 『한국언어문화』58, 한국언어문화학회, 2015.
- 11) 정혜경, 「2010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불가능한 애도'의 양상과 윤리-황정은, 김숨, 윤이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3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위 윤리가 불가능한 애도를 탐문하는 문학적 성찰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최근의 연구 대부분이 이처럼 재현 불가능한 애도의 서사화란 과연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 작업이었는데, 연구작업들이 택한 한결같은 우회적 결론은 결국 애도하는 마음은 항상적<sup>12)</sup>이고 완결이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었다. 상실과 애도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는 오랜 문학의 재료였지만 ‘사건’의 경험과 기억은 이렇듯 문학적 사유의 새로운 지점을 공고히 하는 슬픈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완결 불가능한 애도의 새로움은 어떤 실패의 형상으로 가능할까. 완결 없는 인간의 고통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버틀리의 주장을 정리한 문강형준의 정의대로라면 애도란 상실에서 기인한 개인적 고통을 겪는 것을 넘어 그 고통의 실체가 가리키는 진실을 목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진실에 충실하기 위해 자신이 변화하게 되는 과정 전체를 아우른다.<sup>13)</sup> 요컨대 애도 서사의 미래가 있다면, 상실로 인한 완전한 변화를 수용하고 이후를 예비하는 문학적 사유로써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인간과 세계의 진실을 회구하는 새로운 상실 주체를 상상하는데 있지 않을까.

이 글에서는 이러한 애도 서사의 맥락에 부응하는 소설로 2019년작인 권여선의 『레몬』<sup>14)</sup>을 상정하고 그간 축적된 애도 (불)가능성의 담론을 차용하되 『레몬』의 특수한 지점을 찾아 그 양상과 의미 작용의 방식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최근의 작품이기는 하나 그 계보가 세월호 ‘사건’ 이후 ‘그

12) 김형중,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 트라우마와 문학」, 『문학과 사회』107, 문학과지성사, 2014, 267면.

13) 문강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여성문학연구』35, 한국여성문학회, 2015, 51면.

14) 권여선, 『레몬』, 창비, 2019.(본래 『창작과비평』 2016년 여름호에 「당신이 알지 못하나다」로 발표되었다가 2019년 창비출판사에서 개작 출판되었다. 이 글은 2019년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이후 아래에서 『레몬』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겹따옴표로 표시하고 면수를 붙인다)

라운드 제로(Ground Zero, 대재앙의 현장, 근원적 시작점)<sup>15)</sup>에서 다시 시작하는 만큼 애도 서사의 자장을 깊고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새로움이라면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sup>16)</sup> 특히 『레몬』은 상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의 이야기까지 함께 아우르고 있고 모두의 이야기가 그 죽음의 진상을 향해 가는 추리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다 이 소설과 본 글의 핵심이라 할, 심리적인 면에서는 물론 실질적인 행동 면에서 인간 심연의 탐구라는 문학의 본질과 상통하는 극한의 애도를 실행하는 인간상을 찾아볼 수 있기에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애도란 살아남은 몸의 당연한 윤리<sup>17)</sup>이지만 누군가는 결코 윤리적일 수 없는 애도의 과정 속에 자신의 전부를 던지고 있음을 『레몬』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당신이 알지 못하나다」를 대상으로 한 글을 포함해 『레몬』에 대한 본격 평문이나 연구는 거의 없는 듯하다. 황현경은 당시의 문학 동정을 살피는 글에서 이 작품이 세월호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노란빛으로 칠해진 여러 소재들을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세월호 소설'임을 숨기지 않는다는 말로 저 '사건'과의 연계성을 지적하고 애도 (불)가능성에 대한 풍성한 사유를 비롯해 당사자가 아닌 이의 시선을 거치며 섬세하게 분리되는 동정(sympathy)과 공감(empathy)까지 갖추고 있는 수작으로 평한다.<sup>18)</sup> 이지은은 『레몬』을 리뷰하며 왜 죽은 인물 '해연'이 미모가 아름답다는 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고 있는지, '해연'이 그 자체로서 애도되지 못하고 여러 단계를 경유하는지를 질문하고 '해연'이 '해연'으로서 애도되어

15) 김형중, 앞의 글, 36면.

16) 작가가 인터뷰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레몬』을 쓸 당시 '세월호 참사를 염두에 두지는 않았으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노란 색을 곳곳에 배치한 것을 황현경 평문가의 평문을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어떤 작별이나 상실을 떠올리기만 해도 세월호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무의식 속에 자리잡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후에 제목도 '레몬'으로 바뀌었다.(채널 예스 인터뷰, 글 정의정, 2019.05.22. 원문: <http://ch.yes24.com/Article/View/38875>) 황현경의 평문은 주석<sup>18)</sup> 참고

17) 우찬제, 앞의 글, 347면.

18) 황현경, 「소설이라는 형식-요즘 소설 감상기」, 『문학동네』, 2018.

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본 연구가 이에 대한 해명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sup>19)</sup> 김정선(2018)은 석사 논문에서 권여선 소설 네 편을 대상으로 프로이트의 이론을 기반으로 애도 양상을 살피고 미학적 함의를 밝히고자 하는데 「당신이 알지 못하나다」에 대한 분석에서는 ‘다언’의 서사에만 한정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20)</sup>

이에 이 글에서는 『레몬』을 대상으로 정치하게 분석해 상실 주체와 주변의 인물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상실의 의미를 탐색하고 나름의 애도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우울한 상실 주체의 애도 불가능성

### 1) 우울증의 발현, 오인(誤認)과 전위(轉位)

『레몬』은 세 명의 인물 ‘다언’, ‘상희’, ‘태림’이 각자 화자로 등장해 과거의 사건 기억과 현재의 삶을 교차해 고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8개의 장 중 ‘다언’이 네 개의 장에서 이야기하며 ‘상희’와 ‘태림’이 각 2개의 장에 등장한다. 여기서 가장 중심적인 서사는 언니 ‘해언’의 죽음으로 생성되는 동생 ‘다언’의 애도와 우울, 복수의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2002년 7월, 아름다운 외모의 고등학생 ‘해언’이 누군가에게 가격당해 “두부 손상”을 입고 시신으로 발견되지만 살해 이유도, 범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관련된 이들이 유학을 가거나 학교를 중퇴해버리고 유족으로 남은 모녀만이 먼 곳으로 이사를 가 애도의 시간을 보낸다. “몹시 드물고

19) 이지은, 「미모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애도의 실패 : 권여선, 『레몬』(창비, 2019)」, 『문학과 사회』32, 2019.

20) 김정선, 「권여선 소설에 나타난 애도 실패의 미학」, 고려대정보대학원 석사, 2018.

귀한 것”(80면)을 대하듯 딸을 길렀던 만큼 딸의 죽음을 믿기 어려웠던 엄마는 이를 본래 지으려고 했던 ‘혜은’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은 탓으로 여겨 개명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고 이후 ‘해연’의 이름이 쓰인 모든 것에 ‘혜은’을 넣는 “개명작업”(86면)을 반복한다. ‘다연’이 자각했듯이 모녀는 “비틀린 경로”(88면)를 통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는데, 여기서 더한 특이점은 곧 ‘다연’에게 나타난다. ‘다연’은 언니 ‘해연’을 잃고 난 뒤 “수동적인 무기력 상태”(73면)에 있다가 엄마가 죽은 언니의 이름을 바꾸려고 시도할 때 자기 얼굴을 언니처럼 성형하게 되고 중국에는 상실 대상과 자아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등 자기 상실의 지경에까지 이른다.

엄마가 엄마 스스로를 바꾸지 못해 언니의 이름을 바꾸려 했다면 나는 언니의 그 무엇도 바꾸지 못해 나 스스로를 바꾸기로 했다. (중략)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나는 내 위치와 시점을 알지 못한다. (중략) 나는 언니처럼 거실 소파 위에 무릎을 벌려 세우고 앉아 있었다. (중략) 휴지는 언니이기도 하고 나이기도 했다. 휴지처럼 우리 자매도 죽었다. 나는 더이상 다연이 아니다. 채연, 또는 타연, 그런 비슷한 것일 수 있겠지만 내 마음도 내 얼굴도 이제 다연은 아니다. (중략) 누군가 봄을 잃은 줄도 모르고 잃었듯이, 나는 내 삶을 잃은 줄도 모르고 잃었다.(88-92면)

인용에서처럼 ‘다연’은 부재하는 ‘해연’의 형상을 자기 자신의 변형을 통해 복원하고자 성형하지만 이후 ‘해연’의 대타적 삶을 사는 데 진정한 자기를 소모해버리고 내면의 분열까지 겪는다.<sup>21)</sup> ‘해연화(化)’혹은 ‘해연’과

21) 김정선은 두 모녀의 행동에 대해 이현우의 논의를 빌려 ‘애도적 상상력(엄마)과 ‘우울증적 상상력(다연)으로 설명한다.(김정선, 위의 글, 31면) 이현우는 푸슈킨과 레르몬토프의 시적 상상력을 ‘애도적 상상력’과 ‘우울증적 상상력’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대상의 상실이라는 현실을 수용함으로써 상징계적 질서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안전하게 유지해 나가는 상상력으로, 후자를 현실에 저항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열망, 실재에 대한 유희를 계속 간직해 나가는 상상력으로 설명한 바 있다.(이현우, 『애도와 우울증-푸슈킨과 레르몬토프의 무의식』, 그린비, 2011, 119면)

의 나르시시즘적 동일시를 추구한 데서 발생한 또 한 번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상실을 부인하고 슬픔을 극복하지 못해 생겨난 우울증적 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상실에 대한 일반적 반응인 애도는 리비도 철회와 전위라는 고통의 과정 속에 차차 슬픔을 극복해가는 반면 우울증은 상실의 내용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상의 상실이 자아의 상실로 이어지는 나르시시즘적 퇴행의 과정을 밟는다.<sup>22)</sup> 그의 설명을 따라가면, ‘다연’이 성형하는 것은 ‘해연’을 잃었는데 ‘해연’의 무엇을 잃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다연’이 언니에 대해 기억하고 묘사할 때면 “윤이 흐르는 때 끈한 머리칼”(17면),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태”(33면), “내용 없는 텅 빈 형식의 완전함이 주는 황홀 그 자체”(35면) 등의 수식으로 ‘해연’의 외형만을 떠올리는 장면에서 보듯이 ‘해연’의 무엇이 ‘해연 성(性)<sup>23)</sup>을 구성하는지, 곧 ‘해연’이게 하는 것인지를 오인(誤認)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현경이 지적하듯, 궁극적으로는 언니의 죽음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해 ‘어떻게’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sup>24)</sup>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성형하며 ‘해연’의 외형과 비슷해

22)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슬픔과 우울증」,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14, 247-53면. 프로이트에 따르면 우울증이란 상실에 대한 반응의 하나로 애도와 대비되는데, 그는 두 경우의 구분 기준을 삶의 여부에 두고 있다. 애도의 경우 상실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무엇이 슬픈지를 알기에 시간이 경과하면 리비도의 회수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극복되고 완결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울증은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의 ‘어떤 것’을 상실했는지, 그 죽음의 ‘어떤 것’이 그것을 죽음으로 구성하는지 다시 말해, 왜 죽었는지, 누구에 의해 죽었는지, 죽음의 과정이 어땠는지와 더불어 그 의미를 모르므로 상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며 자애심의 추락을 동반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강제로 회수된 리비도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면서 오직 자아를 포기된 대상과의 나르시시즘적으로 동일시하는 것에만 기여함으로써 대상 상실은 자아 상실로 전환되고 자아와 대상 사이의 갈등은 비판적 자아와 동일시에 의해 변형된 자아 사이의 분열로 변모된다.

23) ‘타자의 타자성’이라는 구절을 본뜬 표현으로 이 글 2.2항에서 설명한 데리다의 논의에서 차용했다.



지려 하고 그로써 '해언 성(性)'이 실제적으로 복원된 것과 같은 위무를 받는다. 그러한 과정 끝에 '다언'은 “누군가 봄을 잃은 줄도 모르고 잃었듯이, 나는 내 삶을 잃은 줄도 모르고 잃었다.”라고 탄식한다. 성형하는 행위란 슬픔을 극복하려는 시도이자 언니의 복원에 대한 열망이었지만 결국 누구의 복원도 회복도 구하지 못한 채 이중의 상실만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애도의 과정이 아님을 '다언'이 알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 절의 내용과 관련해 미리 언급하면 '다언'이 상상(기억하기)의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해언'의 “윤이 흐르는 매끈한 머리칼”(17면)이라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그게 “과잉된 미의 기억”(34면)이며 “쓸데없는 묘사”(33면)라고 자각하기에 이르는데, '해언'으로서의 '해언 성'이란 “완벽한 미의 형식”(199면)만이 아니라 “생생한 삶의 내용”(199면)을 지녔을 때 가능함을 인식하게 된다. 결국 '다언'의 성형은, 상실의 충격과 애도의 실패에서 생성된 우울증적 증상이지만 동시에 타자성의 오인에서 비롯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후 '다언'이 '해언'으로서의 '해언 성'을 찾고 진정으로 애도하기 위해 시도하는 일이란 곧 용의자 중 한 명인 '한만우'를 찾아가는 것이었는데 이 두 번째 행위가 서사의 실제 기점(基點 cruxes)이 되고 있다. 어느 날, 계란을 삶아 먹다 “햇살을 받은 흰자 속의 노른자”(95면)를 보며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레몬”을 같이 떠올린다. 아름답다는 생각은 언니의 잔상인 반면 레몬은 또 다른 화자인 '상희'가 썼던 시에 등장하는 낱말로, 그 일 이후 시를 쓰지 못하고 있는 '다언'의 시심(詩心)을 건드려 깨우는 말이며 동시에 일상 의식의 회복을 뜻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프로이트 식의 리비도의 이탈을 통한 전위(轉位)로 볼 수 있는데, '다언'이 시를 쓰는 사람이었기에 리비도 전위란 시심의 회복의 과정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다언'은 “그(한만우)를 만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비장하게 “노

24) 황현경, 앞의 글, 5면.

란 친사의 복수가 시작되었다.”(97면)고 되뇌며 그를 찾아가지만 복수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그가 범인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그가 고통받는 얼굴로 ‘다인’에게 현현함으로써 ‘윤리적 저항’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sup>25)</sup> 복수를 위해 찾아갔지만 ‘한만우’는 이미 병으로 불구가 되어있고 가난한 그의 가족은 ‘다인’에게 맹목적이고도 무한한 선의를 베푼다. ‘한만우’의 동생 ‘선우’가 대접하는 ‘계란후라이’와 맥주를 먹으며 ‘다인’은 ‘한만우’가 사건 당시 ‘윤태립’에 대한 짝사랑 때문에 누명을 쓰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그의 신발 끄는 버릇이 신을 제때 사주지 못한 가난 때문에 생겼다는 것,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이유와 육종으로 다리를 절단하게 된 사연을 듣게 되고 뒤이어 ‘선우’의 눈물로부터 전이된 울음을 함께 우는 행위로 감정의 정화를 느끼기까지 한다. 그 같은 경험은 ‘다인’으로 하여금 ‘해언’과의 동일시를 통한 혼돈과 우울의 감정을 거두고 인간 일반의 삶에 대한 애정과 연민을 회복하게 하고 뒤이어 신의 섭리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일으킨다.

취한 와중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 조용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려면 그가 집에 갖다줄 돈을 벌게 해주어야 한다. 어떤 삶은 이유 없이 가혹한데, 그 속에서 우리는 가련한 벌레처럼 가혹한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는 그들 남매의 엄마는 난쟁이였다. 선우를 좀더 가혹하게 놀리놓은 것처럼 작았다.(144-5면)

**망루가 불타고 배가 침몰해도, 이 모두가 신의 섭리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신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나는 죽었**

25)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0년, 143면. 레비나스의 타자는 얼굴의 모습으로 현현한다.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에 직면할 때 나의 윤리적 이기성, 존재론적 폐쇄성은 깨어지고 나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을 지닌 주체로서 탄생하게 된다.(같은 책, 214면)

다 깨어나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섭리가 아니라 무지예요! 이 모두가 신의 무지다, 그렇게 말해야 해요! 모르는 건 신이다, 그렇게……(187면)  
(강조는 필자<sup>26)</sup>)

온전한 '해언 성'을 채우려는 시도의 하나로 복수를 다짐했던 '다언'이 정작 '한만우'와의 만남에서 발견한 것은 "이유 없이 가혹한 삶 속에서 "가련한 벌레처럼 가혹한 줄도 모르고 살아"(145면)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해언'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신의 섭리라고는 볼 수 없는 '한만우'의 죄 없는 죽음, "납득할 수 없는"(185면) 죽음이다.<sup>27)</sup> 겨우 인간 삶에 대한 의식을 회복하지만 '한만우'는 '해언'과 죄 없는 죽음으로 연대함으로써 '다언'에게 신의 섭리에 대한 의문만을 남기고 사라진 것이다. '다언'의 애도의 리비도가 전위된 곳은 "펼 펼 살아 있"(199면)었던 '한만우'의 삶이었지만 그것은 다시 한번 상실되고 '다언'은 온전하게 애도를 완결할 리비도의 거처를 잃게 된다.<sup>28)</sup> 그러나 여기서 '다언'은 '한만우'의 '한만우 성(性)'을 명백하게 목도했고 기억하고 있기에 숨어서나마 애도할 수 있었고 '한만우'의 죽음을 경유함으로써 '해언'의 죽음까지를 애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기에 이른다.<sup>29)</sup> 여기서 기억하기의 의미가 얼핏 드러나는데 이에

26) 인용에서 강조된 부분은 2014년의 세월호 '사건'을 의미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외에도 『레몬』에는 '해언'과 '다언'이 입었던 노란 원피스, '선우'의 노란 참외, 계란 노른자, '노란 천사의 복수'라는 말 등 여러 곳에서 세월호 '사건'의 상징인 노란색이 발견되고 있다.

27) 난쟁이 엄마와 누이동생이 있는 가난한 집의 장남이었던 '한만우'는 살인 누명을 쓰고 학교에서 쫓겨난 뒤 군대에 가서 육중에 걸려 다리를 절단하고 의병전역 후 세탁공장에 취직해 다림질을 하다 육중이 폐에까지 퍼져 서른 살에 죽는다.

28) 이 리비도가 다시 전위되었다면 유괴한 아이 '해언'에게로일 것이다. '한만우'와 가족의 삶을 목도한 뒤, '다언'은 "어디를 찾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다."(145면)고 말한다. 신의 무지(無知)와 가혹함에 대한 항변으로써 진짜 가해자를 찾아 신의 권리를 직접 행하고자 하는 복수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다. 그러고는 또 다른 용의자였으나 아버지의 힘으로 빠져나갔던 '신정준'과 '윤태립'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빈'에서 '해언'으로 개명)를 납치해 엄마에게 가져다주는 것으로 복수를 완성한다.

29) '다언'이 발견한 '한만우 성'이란 세탁공장에서 "사뻐하고 경쾌하게" 세탁물을 처리하는 모습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언’의 ‘상상하기’의 의미와 함께 다룬다.

## 2) 시적(詩的) 타자의 발견과 ‘불가능한 애도’의 지연

『레몬』에서 세 명의 화자, 곧 ‘다언’을 비롯해 ‘상희’, ‘태림’은 과거에 혹은 현재 시점에 시(詩)를 쓰거나 쓴 적이 있다. 시적 상상력<sup>30)</sup>이란 시인의 외상적 체험이라는 ‘실재’와의 대면을 지연시키거나 대체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적 환상을 포함하는 것임을 상기할 때, 그들에게 시는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의 대타적 존재이거나 신의 매개체로 격상된 어떤 것이다.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어요?(185면)

그럼 언니, 하고 다언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짓더니 신은 안 믿어도 시는요, 하고 물었다. 시는 믿죠?

시는 믿지.(188면)

인용은 2.1절의 마지막 인용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다언’이 신의 섭리와

---

이다. 거기서 그는 “일머리 있”는 자기 재능을 발휘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동작들로 “새롭고 눈부신 시트들”(197면)을 탄생시킨다. 동생 ‘선우’의 말처럼 “집에 돈 못 갖다주니까 너무 너무 미안해가지고 조용히 사라”지지 않아도 된다. 그 모습은 신발을 직직 끌며 어눌한 말투로 누명을 뒤집어쓰던 모자란 ‘한만우’로부터 가족을 건사하는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행복감을 동시에 누리고 있는 진실한 ‘한만우’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만우’의 죽음 이후 ‘다언’은 ‘해언’의 삶 또한 고통스럽게 파괴되었으나 그것이 자신이 기억하듯 “완벽한 미의 형식”으로서의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삶의 내용”(199면)에 있었음을 알고 그동안 오인했던 ‘해언 성’을 수정한다. 그리고 애도한다. 적어도 무엇을 잃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30) 이현우, 앞의 책, 119면.

무지에 대해 분노하는 장면에 이어지는 '상회'와의 대화이다. 둘은 서로 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시는 어떤 일들을 계기로 중도에 포기하게 된 꿈이었기에 각자에게 상실 경험이자 상흔으로 남아있다.<sup>31)</sup> 그 대상이 사람이건, 언어적 형태건 간에 상실감의 무게는 다르지 않은데 특히 '다언'의 시 쓰기는 다른 형태로, 확장된 의미를 지닌다.

『레몬』의 첫 장인 「반바지, 2002」는 선조적 시간으로 따지면 현재(2019년)의 '다언'이 2002년 당시에 전개되었을 '한만우'와 형사 간 취조 장면에 대해 상상하고 그것을 풀어놓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게 준비된 장이다. 여기서 '다언'은 "십육 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관련된 "세부, 장면, 정황"(9면)들을 꼼꼼하게 세공해 상상한다. 상상이라고 해서 결코 가볍지 않고 "실제만큼이나" "아니, 실제보다 더 고통"스러우며 "그것에는 한계도 기한도"(9면) 없는 것이라 느끼면서도 '다언'은 왜 상상하고 상상할까. 이에 대한 답은 『레몬』의 마지막 장에 주어져 있는데 '다언'이 상상하는 이유는 "생생한 삶의 내용"(199면)이자 의미가 될, "찰나에 불과한 그 순간 순간들"(199면)을 복기하고 무(無)로서 부재하는 타자들의 타자성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상한다'는 말은 기억의 의미와 같은 것으로 주체의 바깥에 부재하는 누군가를 그 누구의 삶의 순간순간들로 완전하게 복원하는 과정이며 '불가능한 애도'를 한없이 지연시키는 책략이기도 하다.

데리다는 프로이트식의, 리비도를 단호히 회수하고 타자를 내면화함으로써 '가능한' 성공적 애도 작업이 대단히 폭력적인 것이라고 여긴다. 내면화란 내 안의 타자가 됨을 뜻한다는 점에서 타자의 타자성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데리다는 애도하되 타자의 타자성을 존중하기 위해 내면화되는 과정에서 '부드러운 거부'를 행해야 하며 이를 '불가능한

31) '다언'은 언니의 죽음 이후 시를 쓰지 못하고 있고 '상회'는 아버지의 반대로 사범대에 진학하면서 꿈을 포기했다. '태림'이 현재 쓰고 있는 시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애도'로 칭한다.<sup>32)</sup> 다시 말해 '불가능한 애도'란 “찰나에 불과한 그 순간순간들”이 연쇄하는 자기 “생명 속에 있”는 타자를 향한 그리움의 기억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다언’의 상상하기는 애도 대상의 부재의 현현(顯顯)과 같고 한없는 그리움과 고통 속으로의 기투(企投)를 동반한다. 그럼에도 ‘다언’은 상상함으로써 ‘해언’과 ‘한만우’의 타자성을 유지하고 이로써 그 자신도 새로운 ‘다언’이 된다. 이러한 행위 의미를 시 쓰는 행위와 연결해 ‘시 짓기’와 ‘시적(詩的) 타자의 발견’으로 의미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된 예술 작품으로써 ‘시 짓기’란 현존재의 존재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sup>33)</sup> 이해되지 않는 상실들을 겪으며 그것을 견뎌내기에도 벅찼던 나머지 “시는 도저히 쓸 수가 없”(177면)이었으나 그 대신 ‘다언’이 실행한 상상력의 작동, 곧 ‘상상하기’를 시 짓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 상상함으로써 부재하는 타자의 현현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죽음에 가까운 고통과 맞닥뜨리며 괴로워하지만 끝내 상상하는 것으로 타자의 타자성을 완성한다. 그리고 우울증적 존재인 “채언 또는 타언, 그런 비슷한 것”(92면)이 아니라 스스로 복수하는 사람 ‘다언’으로서의 존재 전환을 이룬다. 다시 말해, 시 짓기를 죽음에 저항하고 존재의 전환을 이루는 초극적 행위라고 할 때 ‘다언’이 자기 자신으로서의 시적(詩的) 타자가 되는 이유는, ‘해언’이나 ‘한만우’처럼 무구한 인간의 “납득할 수 없는”(185면) 죽음에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신에 저항함으로

32) 왕철, 「프로이트와 테리다의 애도이론」, 『영어영문학』58, 한국영어영문학회, 2012, 789-91면.

33) 하이데거의 ‘시 짓기’와 관련한 내용은 한상연의 글 참고(한상연, 「시, 예술, 그리고 죽음: 죽음의 선구성과 일상성의 존재론적 관계에 대한 성찰」, 『현대유립철학연구』53, 하이데거학회, 2019, 275-81면) 하이데거에 따르면 참된 예술 작품이란 존재의 진리를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시 짓기’는 현존재의 존재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현존재의 존재방식의 하나인 일상성은 죽음으로부터의 도피로 규정되는데 현존재는 참된 시와 예술을 통해 비본래적 존재 방식인 일상성에서 벗어나 존재의 본래적 역사성을 되찾을 수 있다. 참된 시인과 예술가는 현존재에게 존재망각에의 경향으로부터 벗어날 회심의 계기를 마련한다.

써 신이거나 혹은 신을 믿는 그 누구(여기서는 '테림'으로 볼 수 있겠다)도 납득할 수 없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이다. 시를 쓰고 믿는다는 것은 신의 가혹한 폭력 앞에 가능한 존재의 형식을 의미하며 이때 그는 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적 인간이 된다. 따라서 신을 믿을 수 없어 직접 행동(유괴)하는 '다언'의 복수하는 마음은 비록 윤리적 규범에 어긋나기는 하나 상상하기를 거쳐 상실 대상과의 만남("결국 죽은 언니는 해언이 되어 엄마에게 돌아왔다. 이걸 비유가 아니라 팩트다." 74면)이라는 극한 고통의 시(詩)와 만나게 되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시적 타자'에는 '해언'도 포함될 수 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순간, '해언'은 그 무의미에 저항해 죽음을 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론적 의지를 실천했기 때문이다.<sup>34)</sup>

전술했듯이 상상하기를 통해 '다언'은 비로소 테리다가 말하는 '불가능한 애도'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범인으로 유추되는 '신정준'과 '테림'의 아이를 유괴해 기르는 것도 위의 해석과 관련해 '불가능한 애도'를 지연시키고자 '다언'이 스스로 조장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내가 엄마에게 준 선물"(74면)이라는 말에서 보듯 고유의 존재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양육이 되리라는 예견이 가능하므로 이는 결국 불가능한 애도의 지속과 지연을 담보하는 우울증적 자기 징벌<sup>35)</sup>의 행위이기도 하다.

### 3. '이후'에 가능한 '상실 주변'의 자기애적 애도

「시, 2006」, 「육중, 2017」편은 '상희'가, 「끈, 2010」, 「신, 2015」편은 '테림'이 각각 화자로 등장하는데 두 인물의 경우, 상실 이후의 시점에 주변

34) '테림'이 전화 상담이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잠깐씩 내비치는 말에 따르면 '해언'은 묶여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대리석 타일 벽에 머리를 쪼어 자살했다.

35)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앞의 책, 255면.

인의 삶을 살며 자기애를 버리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애도를 실천한다.

### 1) ‘아는 사람’의 관찰과 짐작의 애도

‘상희’는 ‘해언’과 한 반이었고 ‘해언’의 아름다운 외모와 ‘다언’의 “자전거의 종처럼 당당당당 웃던”(42면) 모습을 기억하며 유일하게 사건 전후의 ‘다언’을 앎으로써 그의 미래까지 상상할 수 있는, 사건과 그 관련자들을 ‘아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다언’의 앎이 고통 속의 상상하기를 동반했듯이 ‘다언’에 대한 ‘상희’의 앎 또한 같은 맥락에 있으나 표층적으로는 사건 주변에서 보고 느낀 어떤 감정을 기억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본인 삶의 특정 부분과 엮어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보통 사람의 전형처럼 보인다.

웃거나 고향을 치던 아이가 소리를 푹 그치는 순간 기분 나쁜 정적이 교실 전체에 무겁게 드리웠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죄의식에 사로잡혔고 교실은 진공관처럼 조용해졌다. 이상한 우울과 불쾌가 우리의 미간을 둔중하게 때리고 지나갔다. 나는 한동안 (중략) 그들 자매의 텅 빈 점유를 발견하거나 보이지 않는 움직임과 기척을 느끼고 당혹감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중략) 그런 식으로 그 사건은 우리에게서 끝이 났다.(57-8면)

인용은 사건이 있던 당시 ‘해언’과 ‘다언’이 속했던 학교 공동체의 아이들이 느꼈던 당혹감과 죄의식을 묘사한다. 함께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들의 부재를 실감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공동의 우울과 죄의식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고 각자의 삶에 열중하면서 곧 그들을 잊기에 이른다. 이때 공동의 우울과 죄의식은 상실 당사자의 상심에 대한 연민과



그 상실 대상에 대한 애도의 표현이라 볼 수 있지만 금방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데리다 식의 '불가능한 애도'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상실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죽은 자에 대한 산자들의 일반적 응대이자 온전한 애도의 완결 과정에 가깝다. '다언'의 설명처럼 "한 인간의 죽음은 죽은 그 사람과 나머지 전인류 사이에 무섭도록 단호한 선을 긋는 것이며 "위력적인 배제"(179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은 자의 시선은 살아남은 삶으로 옮겨진다. 여기서 '상회'의 역할이 분명해진다. '상회'는 대학 졸업반일 때 한 번, 그로부터 또 10여 년이 지난 후에 한 번, '다언'과 우연히 부딪히면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상실 당사자의 고통이 열어지거나 혹은 질어지는 과정을 예리하게 관찰한다.

다언이 행한 성형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 해언을 떠올리게 했지만 결코 똑같지는 않았다. (중략) 다언의 예전의 해언과 망가진 해언 사이에 놓인 **중간존재**처럼 보였다.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렇다면 다언은, 옛날의 다언은 어디로 간 걸까.(61-2면, 강조는 필자)

내가 언니 언니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럼 짝한 얼굴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라고 토닥토닥, 그렇게 언니 노릇 하고 싶었어요?(62면)

인용은 사 년 만에 처음 만났을 때 '다언'의 얼굴을 보고 '상회'가 느낀 감정에 대한 묘사와 '다언'이 미리 선부른 동정을 거절하는 대화의 한 부분이다. '상회'는 성형하는 과정에서 '다언'이 느낀 자기 상실의 감정을 외부인의 입장에서 똑같이 읽어내고 '다언'의 상실감과 거기서 비롯한 '다언'이라는 사람 자체의 상실을 목격하고 애도한다. 이는 문예반 시절 '다언'의 시와 "둥글과 발그레한" 뺨, "통통한 주먹", "순박한 투덜거림", "아기 곰 같은 동그란 몸짓", "시에 대해 얘기할 때 친변만화하던 표정", "와락

안겨오던 무게와 체온”, “웃음소리”(51면) 등을 알고 있기에 가능한 애도이다. 무엇이 ‘다인 성(性)’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앎으로써 그러한 ‘다인성’이 파괴되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상회’가 꺼내는 ‘중간존재’라는 말은 자아 내부에 타자의 낱골당을 안치함으로써 ‘산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울증적 합체에 정확히 부합하는 표현이 된다.<sup>36)</sup> 두 번째 인용은 선부른 걱정과 위로가 오히려 상처를 후벼내고 공격성을 드러내게 하는 일임을 파악하게 한다. ‘다인’이 아직도 시를 쓰느냐고 질문했을 때 ‘상회’ 또한 시(詩)라는 대상을 잃어버린 상실 주체임을 깨닫는데, 그동안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면서도 타인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척 위선 떨던 속마음을 ‘다인’에게 들키자 “발끈하여 그녀를 공격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던” 것을 자각한 바 있다. 상실 당사자들에 대한 위로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유의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부분이다.

이처럼 ‘상회’의 관찰은 애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상실 당사자의 존재와 그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윤리적 태도를 대변한다. 그녀에게는 ‘다인’의 시선을 경유한 ‘한만우’는 물론 ‘다인’ 자체가 모든 것이 박탈된 궁핍한 얼굴, 고통받는 얼굴의 모습으로 현현함으로써 윤리적 행동을 촉구하고 나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타자, 곧 레비나스의 이웃이다. 그래서 ‘상회’는 ‘다인’의 방식과 같은 상상하기를 통해 자신이 과거에 알았던 ‘다인’을 상실했고 그것이 앞으로도 지속될 상실임을 자각하면서 동시에 그 애도 과정의 고통을 애도하고 연대의 자세를 취한다.

‘한만우’의 삶을 요약해 전달하며 “신의 무지”에 분개하는 ‘다인’을 만나

36) See N. Abraham & Maria Torok; Mourning or Melancholia: Introjection versus Incorporation, In: N. T. Rand(ed & trans): The Schell and the Kernel, Renewals of Psychoanalysis, Chicago & London 1994, pp.130-1;140-2. ‘산 죽음’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경진의 글에서 재인용(이경진, 「제발트 문학에 나타난 멜랑콜리 연구」, 서울대석사, 2008, 24면)

고 가는 길에 '상희'는 '해연'을 떠올리는 어린 '혜은'의 존재를 어렵풋이 느낀다. 그리고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그해에 일어난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임을 짐작하고 “끔찍한 무엇을 멈출 수 없다는 것, 그제 한 인간의 삶에서 어떤 무게일지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190면)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마지막의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은 이미 상상하는 행위 자체를 포함한 윤리적 언술이다. 또 상상한다는 것은 묻지 않았기에 불명확한 어떤 상황이 있음을 전제한다. '상희'가 보이는 애도와 연대는 바로 이 '묻지 않음'에 있다. 묻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애도 과정을 애도하고 그들의 아픔에 보이지 않는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희'의 상상하기는 겨우 가능한 짐작의 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인들이 전형적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한' 애도라는 점을 한계로 드러낸다.

## 2) 가해 주체의 고립과 고해의 애도

'태림'의 이야기는 일종의 고백서사의 형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그녀의 서사를 정리하면, 사건 무렵 '신정준'을 좋아했지만 그가 '해연'에게 관심을 보이자 '해연'을 시기했던 인물로, 사건 직후 정확하지 않은 진술로 '한만우'를 범인으로 만들 뻔하고 관련된 이들이 학교를 떠난 뒤에도 남아 졸업한다. 이후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신정준'의 청혼을 받아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아기 '예빈'은 돌이 되기도 전에 유괴당하고 없다. 「끈, 2010」, 「신, 2015」편은 결혼 전 전화 상담과 유괴 사건 3년 후 정신과 상담 속 대화를 녹취록의 형태로 옮긴 것으로 상대방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어서 자기도취에 빠진 여자의 수다이거나 특정 종교에 과몰입한 이의 비정상적 고해처럼 보인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태림'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태림'이 실제 사건의 현장에서 '해연'이 죽는 순간을 보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단지 직접적인 가해자인 '신정준' 외에 가족이

나 관련자도 모르는 사실의 하나로, ‘해연’이 ‘끈’으로 묶인 상태에서 죽었다는 것, 이후에 남편이 된 ‘신정준’에게서 들은 바대로 스스로 타일 바닥에 머리를 쫓아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해연’의 죽는 순간의 과정을 들은 이후 ‘태림’은 그 장면을 세세하게 상상하며 간접적인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린다.

정말이에요. 죽이기는커녕 어떻게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그애가 갑자기 미친 고양이처럼 날뛰더니 그냥 자살해버렸다고…… 왜냐고요? 왜냐니요? 그건……수치스러워서…… 유혹하려다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자살한 거겠죠. 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애 혼자 자기 머리를 벽에 부딪쳐서…… (중략) 대리석 타일에 금이 가도록 그렇게…… 죽을 때까지 부딪쳐서 그렇게…… 아무리 묶여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독하게…… 아…… 무서워…… 미친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야……(110-1면)

프로이트는 집요하게 떠들어대는 속성을 자기 폭로를 통해 만족을 얻기 위한 우울증적 증상으로 보는데,<sup>37)</sup> ‘태림’의 상태는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인용처럼 ‘태림’의 발화에는 중간중간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정념들이 발작적으로 나타난다. 주절거리는 바에 따르면 그녀의 혼란은 ‘해연’의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고 방조한 데서 생성된 죄의식에서 기인한다. 또 그 진실을 공유한 그녀에게 은폐를 지속하고자 결혼을 제안한 ‘신정준’으로부터 받은 모멸과 배반감이 이후에 더해졌고 그렇게 형성된 정념 기억<sup>38)</sup>이 그녀의 현재를 시시각각 옥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 그녀의 죄의식과 두려움의 정념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과정에서 생

37)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앞의 책, 249면.

38) 마혜정, 「김원일의 〈바람과 강〉에 드러난 정념 기억과 주체 의식 연구」, 『현대소설연구』7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98면.

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정념이란 본래 나 자신의 안녕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외적인 것, 즉 통제 불가능한 것과 관련해 현재의 사태를 등록하는 나만의 방식<sup>39)</sup>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정념들은 온전하게 '해언'을 향한 애도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가해자인 '신정준'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고 유지하려는 자기 보전의 욕망, 자기에게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녀는 내내 '죄 없는 죄'<sup>40)</sup>를 강조하지만 그게 진실이라면 '신정준'과 결혼을 조건으로 "거래"(106면)하지 않았을 것이며 산후 우울증에 시달릴 당시 '해언'이 죽었던 방식을 그대로 모사하고자 하는 욕망에 시달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울증 환자야말로 진실을 바라보는 더 예리한 눈을 가지고 진정한 자기 이해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프로이트의 견해대로라면 '태림'이 하필 '해언'의 죽음의 방식을 모사하려던 행위란 그녀 스스로 '해언'에게 죽음에 응당한 어떤 것으로 갚아야 할 부채가 있음을 무의식중에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41)</sup> 아이를 키우면서부터 잠시나마 그러한 죄의식을 망각할 수 있게 되지만 곧 아이를 유괴당한 뒤 다시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온 '태림'은 결국 신에게 의지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완전히 수동적인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시로 노래하는 열락"(162면)을 얻는다. 스스로 '시 짓기'를 통해 "자기 치유"(161면)를 이루었다 자신하고 "시를 읽고 시를 낭독하고 시를 쓰면서, 저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평온함과 충일함을 느낀"(162면)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느날 "주님"으로부터 "그이(신정준)의 영혼이 사망의 골짜기에 이를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163면) 듣고 다음과 같은 시를 쓴다.

39) 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역, 『감정의 격동 1 인정과 욕망』, 새물결, 2015, 30면.

40) 임흥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6, 46면.

41)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앞의 책, 248면.

쫓개진 토끼의 두개골 / 고름주머니로 남은 사자의 몸 / 놀라워라, 은혜  
은혜 은혜 / 해는 재로 가리우고 / 언 땅을 덮는 검은 천공 / 노래하  
라, 은혜 은혜 은혜(164면, 강조 는 필자)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지만 그녀의 시에는 2002년 사건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쫓개진 - 두개골”은 자신이 상상했던 ‘해언’의 잔상이며 “고름주머니”와 “사자”란 죄의 대가로 여겨지는 상실을 겪고 괴로워하는 ‘신정준’의 은유로 해석된다. 또한 과잉해석을 무릅쓰는다면 4행과 5행의 첫 글자의 조합이 바로 ‘해언’이 됨을 볼 수 있다. 시 속에 투영된 바, 그녀의 상상하기의 능력은 오히려 공포스러운 사건의 현장을 고스란히 너리 속에 되살리고 그것을 지속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태림’은 누구와도 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나누지 못한 채 여전히 죄의식과 공포 속에서 고립되어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고해의 언어, 그래서 맹목적이고 또한 참되지 않은 ‘시 짓기’로 발설하고 있다. ‘다언’이 ‘시 짓기’를 통해 불가능한 애도를 실현하고 스스로 시적(詩的) 타자로 존재 전환을 이루어 신에게 저항했던 반면, ‘태림’은 그러한 ‘시 짓기’에 실패하고 단지 남편 ‘신정준’의 죄를 환기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죄를 은폐하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도구로 시의 껍데기만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신에게 바치는 그녀의 시는 자기 공포와 죄책감을 언어적 형태를 빌려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다는 점에서 신에 대한 경배를 마지막 대안으로 삼는 그녀의 애도 또한 ‘가능한’ 애도가 될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권여선의 『레몬』을 대상으로 상실 주체와 ‘상실 주변’의 애도

양상에 대해 살폈다. 먼저 상실 주체인 '다언'의 우울증적 증상을 살피고 테리다의 애도 이론에서 '타자의 타자성' 개념을 활용해 그것의 물리적 복원의 의미를 탐구한 뒤 부재하는 다른 인물로의 리비도 전위를 통해 애도 가능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논의했다. '다언'의 성형은 '해언'의 '해언성'을 오인한 데서 기인했으나 '다언'은 스스로 '시 짓기'의 일환인 상상하기를 통해 '시적 타자'가 되어 '해언'과 '한만우'의 생생한 삶의 내용을 읽어냄으로써 온전한 애도, 곧 테리다의 의미에서 '불가능한 애도'를 시도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다언'의 시적(詩的) 인간으로의 존재 전환을 논구함으로써 『레몬』의 모든 화자가 시를 쓰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궁극적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죽은 이와 같은 반 학생이었던 주변인으로서의 '상희'와 '태림'의 서사를 살폈다. 두 인물은 각자의 현실 안에서 상실과 타자의 의미를 탐구하는 '가능한' 애도의 실천자들로 '상희'의 경우 '다언'을 관찰하고 그의 아픔을 짐작하는, 상실 당사자의 애도 과정을 애도하는 인물로 의미화했다. '상희'로 대변되는 주변인의 전형적 애도란 묻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연대를 포함한다. '태림'은 간접적 가해 주체로 볼 수 있는 인물로 죽은 이와 그를 죽인 인물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상실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리로 옮겨가면서 '다언'의 애도와 가깝지만 먼 방식의 애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태림'의 '시 짓기'는 '다언'의 그것과 달리 자기 공포와 죄책감을 언어적 형태를 빌려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이를 신을 경배하는 도구로 삼아 구원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 프로이트 식의 '가능한' 애도의 하나가 된다.

『레몬』을 2014년의 '사건'과 사건의 '이후'에 대한 문학적 응전의 한 사례로써 완결 불가능한 애도의 새로움을 시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술한 대로, 곧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다언'이라는 상실 주체의 새로운 형상과 그가 생성하는 극한의 애도 방식을 그 근거로 들

수 있겠다. '다언'이 시도하는 모든 행위들, 즉 성형을 통한 자기상실과 가해자의 아이 유괴를 통한 사적인 복수, 신의 권리를 침범해 행한 누군가의 부활, 죄 없는 순수 존재를 대신한 신에 대한 분노와 저항, 고통 속의 기억하기와 상상하기 등이 모두 온전한 애도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은 과연 그것의 항상성과 불가능성을 확인하게 하는 문학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애도란 진정 생애 내내 『레몬』이 말하는 '상상하기'로의 기투(企投)를 멈추지 않는 데서 겨우 일말의 완결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이렇듯 '다언'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을 때, 『레몬』이 갖는 문학적 응전의 의미는 그간 지적되어온 애도 재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다. 그러나 '상회'로 대변되는 상실 주변, 현실에 있는 상실 공동체 안의 우리에게 초점을 옮겨오면 '묻지 않음'의 윤리적 실천을 통한 애도만으로는 불충분해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묻지 않음'으로써 상실 주체와 애도의 고통, 애도의 과정 모두를 부정하거나 망각하는 상황에 대한 응전이나 연대가 가능할 것인가. 상실 주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망각과 변화까지를 수용한 애도의 행태를 형상화한 문학적 응전을 기다려도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 보인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권여선, 『레몬』, 창비, 2019.

2. 참고 자료

김영삼, 「세월호 '사건'과 '사건' 이후 문학의 가능성-『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감성연구』16, 전남대학교호남학연구원, 2018.

김형중, 「문학과 증언: 세월호 이후의 한국문학」, 『감성연구』12, 전남대학교호남학연구원, 2016.

김형중,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 트라우마와 문학」, 『문학과 사회』107, 문학과지성사, 2014.

마혜정, 「김원일의 〈바람과 강〉에 드러난 정념 기억과 주체 의식 연구」, 『현대소설연구』7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문강형준, 「재난 시대의 정동-애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여성문학연구』35, 한국여성문학회, 2015

박민규, 「눈먼 자들의 국가」, 『눈먼 자들의 국가: 세월호를 바라보는 작가의 눈』, 문학동네, 2014.

소영현, 「민주화의 역설과 한국소설의 종말론적 상상력 재고」, 『한국문예창작』12, 한국문예창작학회, 2013.

손정수, 「진행 중인 역사적 사건이 소설에 도입되는 방식들 : 세월호 사건 모티프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6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신수정, 「종말의식의 재현과 휴머니티의 기원」,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문예비평학회, 2011.

왕 철, 「프로이트와 데리다의 애도이론」, 『영어영문학』58, 한국영어영문학회, 2012.

이경진, 「제발트 문학에 나타난 멜랑콜리 연구」, 서울대석사, 2008.

이수형, 「문학과 감정 논의에 대한 (재)검토」, 『문학과 사회』110, 문학과지성사, 2015.

이영진, 「2014년 여름 비탄의 공화국에서:애도와 멜랑콜리 재론」, 『문학과 사회』107, 문학과지성사, 2014.

우찬제, 「애도의 윤리와 소통의 아이러니」, 『문학과 사회』,27, 문학과지성사, 2014.

이소연, 「더블클릭을 향한 열정」, 『문학과 사회』,29, 문학과지성사, 2016.

정혜경, 「2010년대 소설에 나타나는 '불가능한 애도'의 양상과 윤리-황정은, 김숨, 윤

- 이형의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3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 한상연, 「시, 예술, 그리고 죽음: 죽음의 선구성과 일상성의 존재론적 관계에 대한 성찰」, 『현대유럽철학연구』53, 하이데거학회, 2019.
- 황현경, 「소설이라는 형식-요즘 소설 감상기」, 『문학동네』, 2018.
- 이지은, 「미모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애도의 실패: 권여선」, 『레몬』(창비, 2019), 『문학과 사회』32, 2019.
- 김홍중,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2016.
- 왕은철, 『애도 예찬』, 현대문학, 2012.
- 이현우, 『애도와 우울증-푸슈킨과 레르몬토프의 무의식』, 그린비, 2011.
- 임진수, 『애도와 멜랑콜리』, 파워북, 2013.
- 임홍빈, 『수치심과 죄책감』, 바다출판사, 2016.
-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0.
- 마사 누스바움, 조형준 역, 『감정의 격동 1 인정과 욕망』, 새물결, 2015.
- 조르조 아감벤, 정문영 옮김,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2.
-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역, 『불확실한 삶』, 경성대출판부, 2008.
- 지그문트 바우만, 정일준 역, 『부수적 피해』, 민음사, 2013.
-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2003.

<Abstract>

A Study on '(im)possible mourning' in the subject  
experiencing loss and the 'periphery of loss'  
— Focusing on Kwon Yeo-seon's 『Lemon』

Ma, Hye-jeong

This study situates 『Lemon』 in the context of mourning narratives and explores a specific point in 『Lemon』 using accumulated discourses on the (im)possibility of mourning in order to analyze its aspects and the way meanings operate. Although 『Lemon』 is a recent work, the genealogy begins at Ground Zero after the Sewol Ferry Incident, and active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novelty of the literature on mourning and expand and popularize it. In particular, 『Lemon』 addresses not only the individual experiencing loss but also those in the surrounding community, and conveys a logic that enables the reader to reach the truth behind death. In addition, this novel portrays humans expressing extreme mourning in line with the essence of the literature, both in terms of practical as well as psychological behavior, which is the core aspect of the novel and this study. Due to such characters, the novel qualifies as a research topic. 『Lemon』 argues that although mourning is a natural way of surviving loss, immersing one's entire body in mourning is still unethical. First, we assess depressive symptoms in the subject experiencing loss. Using Derrida's 'the Otherness of the Other' to inquire into the meaning of physical restoration, the study examines the way in which Libido's displacement to other absent figures leads to a discovery of the possibility

of mourning. Here, the part where the main character argues for the conversion of existence into poetic human beings is significant, as it clarifies the underlying reason for setting up all the speakers in 『Lemon』 as poets. Next, the narrative of the surrounding people is examined. There are two characters who explore the meaning of loss and the other in their respective realities as practitioners of “possible” mourning. The analysis reveals them mourning their observation and predictive behavior, as well as their narcissistic mourning while confessing their sins as perpetrators.

Key words: The mourning narrative, 『Lemon』, The subject of loss, 'The periphery of a loss', The work of mourning, The impossible mourning, The other, Poetic Other, Observation, Confession

투 고 일: 2021년 8월 20일

심 사 일: 2021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9월 23일